“연기 마스터? 끝이 없는 거 같아요”

영화 ‘마스터’ 엘리트 경찰 김재명 役 강 동 원

“바르고 정의감 넘치는 사람의 매력을 보여주려면 무조건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절대 뭔가를 더(오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강동원은 21일 개봉하는 영화 ‘마스터’에서 자신이 맡은 형사 김재명에 대해 “현실 속에서는 판타지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지능범죄수사대 팀장인 김재명은 희대의 사기꾼 진회장(이병헌)을 잡아 그가 가진 장부를 토대로 뇌물을 받은 권력층까지 모두 잡아넣겠다는 집념을 가진 인물이다.

그동안 한국의 범죄영화에서 곧잘 그려졌던, 누가 범인인지 경찰인지 모를 정도로 욕설을 입에 달고 사는 거친 형사 캐릭터와는 거리가 멀다. 정의감이 넘치는데, 두뇌 회전도 빠르고 외모까지 번듯하다. “이번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해 썩어버린 머리를 잘라낸다”와 같은 문어체 대사를 내뱉는데,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사실 김재명 캐릭터는 배우들이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배역이다. 악역의 진수를 보여주는 이병헌이나 사람 사이를 박쥐처럼 오가는 김우빈과 달리 입체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대사도 감정표현보다는 정보전달 위주의 대사가 많다.

강동원은 그러나 이 배역에 더 주목했다. 최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만난 강동원은 “그동안 다른 영화에서 많이 봐왔던 경찰 캐릭터와 달리 경찰이면서 욕도 하지 않고, 바른 모습으로 그려져 오히려 더 끌렸다”고 했다.

또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무겁지 않고 가볍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 톤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이병헌, 김우빈과 처음 작업을 함께한 소감도 털어놨다.

“병헌이 형과 우빈이는 촬영 현장에서 끊임없이 애드리브를 하더라고요. 우빈이도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해오는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중간 중간에 많이 바뀌기도 했죠.”

강동원과 대화하다 보면 영민한 배우라는 인상을 받는다. 자기 할 말은 가감 없이 하되, 선을 넘지는 않는다.

“저는 평소에 뉴스를 즐겨 보는데, 이 영화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것은 결말이죠. 외압에 굴하지 않고 경찰이 끝까지 수사하다가 범인을 잡는다는 뉴스는 최근에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마지막 엔딩신을 찍을 때 제 입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더라고요. 아마 저도 모르게 대리만족을 하고 있었나 봐요.”

병헌이 형·우빈 애드리브에
중간중간 시나리오 바뀌져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범인 잡는
통쾌한 엔딩에 대리만족 느껴

186㎝의 큰 키에 모델 출신인 강동원은 농구, 족구, 테니스, 축구, 수영 등 못하는 운동이 없는 만능스포츠맨이다. 이런 뛰어난 운동 신경 덕분인지 그의 다양한 액션 연기가 도드라져 보였다. 그러나 폭파장면 등을 촬영하다가 목에 유리파편이 꽂히는 큰 부상을 입기도 했다.

“복싱처럼 서로 실제 때리면서 하는 맨몸 액션이 가장 힘들었어요. 폭파신도 부상 위험이 크기 때문에 어려운 액션 중 하나죠. 가장 재미있는 액션은 자동차 추격신이더라고요.”

강동원은 올해 ‘검사외전’, ‘가려진 시간’에 이어 ‘마스터’까지 3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검사외전’은 970만명을 동원했지만 지난달 개봉한 ‘가려진 시간’은 51만명을 불러모은 뒤 2주 만에 조용히 간판을 내렸다. 강동원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며 쿨한 반응을 보인 뒤 “‘마스터’가 흥행이 잘 될 것 같아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강동원은 “올해 정말 많이 바빴다. 개인적으로는 진일보한 점도 있었고, 일로도 공격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템포를 유지하며 작품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뜻하는 영화 제목처럼 ‘연기 마스터’에 대한 꿈을 물었다.

“한 작품 한 작품 하면서 연기가 늘고 있지만, 연기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연기에는 인생이나 사회 전반에 대한 것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도 해야 하고… 어떤 배역을 맡아 표현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인생을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끝도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연합뉴스

격투기 중 안와골절 김보성

“시력 손상 우려 수술 포기”

소아암 어린이 위해 대전료 전액 기부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해 종합격투기에 도전했다가 안와골절을 당한 배우 김보성(50)이 시력 손상을 우려해 수술을 포기했다.

과거 부상으로 왼쪽 눈으로는 명암 정도만 구분 가능해 시각장애 6등급인 김보성은 지난 10일 격투기에 도전했다가 오른쪽 눈 주위 뼈 1.8㎝가 골절됐다.

김보성은 20일 “시신경은 예민하기 때문에 수술이 자칫 잘못될 수도 있어 수술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술 대신 물리치료 등을 통해 부상 완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김보성은 격투기 경기에 렌즈를 낀 상태로 링에 올랐다가 오른쪽 눈 주변을 가격당한 후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고 경기를 포기했다. 그는 당시 경기 직후 “왼쪽 눈이 안 보이고, 오른쪽 눈은 렌즈를 끼고 생활한다. 그런데 오른쪽 눈을 정통으로 맞았다. 순간 아무것도 안 보였고, 장님이 되나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잘 보이는 눈도 렌즈를 끼고 (경기를) 하는 건 무리가 있었다. 그걸 깨달았다. 아내가 ‘오른쪽 눈만은 최대한 보호해라’고 당부했는데, 약속을 못 지킨 것이 패배의 요인”이라고 말했다.

김보성은 이 경기의 대전료 전액을 기부했다. /연합뉴스

‘미운우리 새끼’ 한혜진, 잠시만 안녕~

남편 기성용 내조 위해 4개월간 자리 비워

배우 한혜진이 SBS TV ‘미운 우리 새끼’의 MC 자리를 4개월여 비운다.

SBS는 한혜진이 남편 기성용이 있는 영국으로 가게 되면서 내년 1월 말부터 5월까지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하지 않는다고 19일 밝혔다.

한혜진은 ‘미운 우리 새끼’의 마지막 녹화를 마쳤으며, 녹화분은 편집에 따라 1월 중순에서 말까지 방송될 예정이다.

한혜진은 프리미어리거인 기성용(스완지시티)과 결혼하면서 영국에 머물다 지난 추석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 3년 만에 복귀했다.

‘미운 우리 새끼’는 한혜진이 복귀할 때까지 신동엽-서장훈 MC 체제로 이어간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언제나 봄날〉	10 KBC 모닝와이드 3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SBS 아침연속극 〈아임 쏘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분 좋은 날	3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스페셜(재) 55 감성애니 하루	00 수목드라마 〈오 마이 금비〉(재)	00 주말드라마 〈불어라 미풍아〉 (재)	00 TV블로그 꼼지락 05 위대한 유산 3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역도요정 김복주 〉(재)	00 SBS 12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꼼지락 55 테마스페셜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숨터 내가 사랑한 문화유산	00 비타민(재)	30 드림 주니어 스페셜	55 닥터 365
2	0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질문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00 중계방송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0 TV 유치원	55 프리파라 2	3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 〉(재)	30 고향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꼬마어사 쿵도령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애슬론 또봇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7	00 KBS 뉴스7 35 프로젝트TV 필통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블로그 꼼지락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05 공감다큐, 사람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트릭 앤 트루	5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00 시사토론 10 55 숨터 미래유산 100년 후 보물찾기	00 수목드라마 〈오 마이 금비〉	00 수목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 〉	00 수목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11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아이티의 한국엄마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웃음을 찾는 사람들
12	30 동행(재)	10 희망 콘서트	35 MBC 뉴스 24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아시아의 희귀 풍습〉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딩동댕 유치원 1~2
08:45 놀이대장을 찾아라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쥬
09:15 시계마을 티키톡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쥬
09:40 부모-위대한 엄마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암효숙의 뼈다귀 해장국〉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 초대석
13:40 오 마이 미래 2035
13:50 그림을 그려요(2)
13:55 코코몽3(재)
14:25 잭과 팡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두키탐험대
15:20 꼬마기사 마이크
15:35 요술상자(2)
15:45 레이디버그(재)
16:15 두다다쿵
16:30 놀이대장을 찾아라(재)
16:45 딩동댕 유치원 1~2(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9:30 EBS 뉴스
19:50 달라졌어요(재)
20:40 다큐 오늘 〈히말라야의 소년 짐꾼, 소남이〉
20:50 세계테마기행 〈대지의 끝을 가다, 칠레 3부 길에서 시를 만나다〉
21:30 한국기행 〈톡 쏘는 인생 사이다 투어 3부 바보섬 홍합 캐는 날〉
21:50 EBS 다큐 프라임 〈중앙아시아, 살아남은 야생의 기록〉
22:45 극한직업 〈인도네시아 목청꾼〉
23:35 장수의 비밀
24:05 세상의 모든 법칙
24:10 특집-국민공감콘서트 大한국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1일(음 11월 23일 丁丑)

子 48년생 어긋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대비해야한다. 60년생 절제하지 않으면 넘치게 될 것이니 각별히 신경 써야겠다. 72년생 기간이 지난 것이라 하더라도 소홀히 하면 아니 된다. 84년생 끼어들면 시비 수에 휘말린다. 행운의 숫자 : 64, 49

丑 49년생 당황한다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 61년생 가시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지향하는 것이 옳다. 73년생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확실히 벗어나야만 한다. 85년생 대박 나겠다. 행운의 숫자 : 50, 85

寅 50년생 희비가 교차하는 하루이니 여러 곳에 신경을 써야만 할 것이니라. 62년생 관련 사항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74년생 직접 실행하는 것이 백번 낫다. 86년생 숨은 뜻을 읽을 수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31, 30

卯 51년생 위험 요소를 무시하면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63년생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날이니 매사에 예의 주시하며 정갈히 대기하라. 75년생 처음부터 뚜렷이 구분될 것이다. 87년생 지리멸렬했던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한다. 행운의 숫자 : 12, 32

辰 40년생 균형 감각이 절실하다. 52년생 흔들리지 않아야 성과를 본다. 64년생 잘 살린다면 예상보다 많은 결실이 따른다. 76년생 성취할 가능성이 농후하니 본격적으로 시도해도 된다. 88년생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63, 83

巳 41년생 정신을 바짝 차려라. 53년생 쉽게 눈에 띄는 걸림돌부터 해결하고 볼 일이다. 65년생 지금 보완하지 않으면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77년생 빨리 조치할수록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89년생 싱겁게 끝날 수다. 행운의 숫자 : 19, 74

午 42년생 투명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뒤탈이 없겠다. 54년생 예기치 못한 이로움이 따르리라. 66년생 괴로움이 사라지면서 평온함이 깃든다. 78년생 소모적인 동세이니 집착을 떨치고 과감히 버려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80, 70

未 43년생 의외의 경로로 새어나가지 않을까 두렵도다. 55년생 취지는 좋으나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자. 67년생 충동적인 말이나 행동을 자제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 79년생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임을 알라. 행운의 숫자 : 06, 91

申 44년생 사실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라. 56년생 여러 가지 동향을 고려해서 대응할 일이다. 68년생 기본적인 바탕이 좋아야 추진되는 형국이 건실해지는 법이다. 80년생 주변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주견을 가져라. 행운의 숫자 : 90, 24

酉 45년생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함이 훨씬 나을 것이다. 57년생 상대의 언행 속에는 의미심장함이 있거늘 진정한 뜻을 이해하여야 한다. 69년생 근본에 대한 원칙을 고수해야 할 시점이다. 81년생 상호적일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54, 15

戌 46년생 적덕이 있다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58년생 호기가 돌아왔으니 본격적으로 추진해도 된다. 70년생 의지만 있다면 실행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기회도 풍부함을 알라. 82년생 하루 종일 바쁘지만 열매는 미미하겠다. 행운의 숫자 : 99, 38

亥 47년생 바른 생각은 복주머니를 만드는 셈이다. 59년생 지연되기는 하나 목적은 달성되겠다. 71년생 순리대로 행한다면 반드시 이익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83년생 방식이 변경될 수도 있으나 기본적인 속성은 대동소이하다. 행운의 숫자 : 77, 9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